

제주인의 친목회 활동과 부조문화에 대한 의식조사연구*

– 제주시 동(洞)지역의 문중(宗親)회, 동창(동문)회,
향우회를 중심으로

강 봉 수**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과 조사내용
 - 1. 이론적 배경
 - 2. 조사 내용과 방법
- III. 조사결과 및 논의
 - 1. 친목회 활동에 대한 의식
 - 2. 부조문화에 대한 의식
- I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제주시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친목회 활동과 부조문화에 대한 의식을 설문조사법으로 연구한 것이다. 친목조직으로는 문중(宗親)회, 동창(동문)회, 향우회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친목회에 참여하는 규모나 이유, 그것이 부조문화에 미치는 영향, 부조하는 범위나 이유, 친목회 활동과 부조문화의 전망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문중(宗親)회의 참여비율은 낮고, 동창(동문)회와 향우회에 참여비율

* 이 논문은 2022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bingwoo@jejunu.ac.kr

은 높다. 특히, 초등학교 동창(동문)회와 고향마을 향우회에 참여율이 매우 높다. 친목회에 가입한 회원들은 행사참여를 비롯해 조직 활성화에 적극적인 태도로 기여하고 있다. 부조문화가 활성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당연한 예의이거나 제주의 공동체적 문화전통(관습) 때문이라고 답하지만, 친목회 활동이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부조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이러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겹부조 풍속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친목회 활동과 연계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권당정치’ 문화에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친목회 활동과 부조문화는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지만, 겹부조 풍속과 ‘권당정치’ 문화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주제어 : 친목회, 문중(종친)회, 동창(동문)회, 향우회, 부조문화

I. 서론

이 연구는 제주인의 친목회 활동과 부조문화에 대한 의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제주사회는 ‘수놓음’이나 각종 접계모임 등에서 보듯이 예로부터 공동체적 문화전통이 강했고 좋은 일이나 굿은일에 서로 돕고 부조하는 문화가 발달해왔다(김항원, 1990: 135-136쪽).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놓음’이나 접계조직보다는 문중(종친)회, 동문(동창)회, 향우회 등이 그러한 문화를 잇고 있는 대표조직들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이러한 추정은 다분히 개인적인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입도조에 대한 제례행사나 각종 문중(종친)회 모임, 여러 학교 단위의 동문체육대회를 비롯한 동문(동창)회 모임, 향우회 모임 등을 관찰하는 것은 사실 논자만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이라면 흔치않게 경험할 것이다. 또한 결혼식장이나 상가 집 등에 가보면 수많은 축하객과 문상객들이 방문하여 축하 또는 조문하고 부조하는 현상을 어렵지 않게 경험한다. 특히 여러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등의 친목회 이름으로 식당주변에 진열된 각종

회환들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현상들은 연구자를 포함한 개인들의 피상적 관찰이고 경험일 뿐 실증적으로 실태나 의식을 파악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각종 친목회 활동에 참여하는 규모나 이유, 그것이 부조문화에 미치는 영향, 부조하는 범위나 이유, 친목회 활동과 부조문화의 문제점이나 바람직한 방향 등에 관한 조사연구는 있어보지 못했다.¹⁾ 그래서 이 연구는 문중(종친)회, 동창(동문)회, 향우회 조직을 중심으로 친목회 활동과 부조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을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조사를 위해 정형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관심에 따라 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제주사회의 규범윤리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돌아보면서 조사를 위한 설문내용의 구성 내역과 조사방법을 밝히겠다. III 장에서는 확보한 기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관련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IV 장의 결론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친목회 활동과 부조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해보겠다.

1) 부조문화에 대한 조사는 있었다. 예컨대, 1996년에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총국과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을 연구했는데, 여기서 '가정의례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면서 부조문화를 다루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조사』를 연구했는데, 여기서 겹부조 문화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친목회들의 활동과 부조문화를 연계해서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Ⅱ. 이론적 배경과 조사내용

1. 이론적 배경

근대화·도시화 이전까지 한국사회는 공동체적 문화전통이 강한 국가였다. 공동체적 문화전통을 낳은 요인이 다양하겠지만, 핏줄을 중시하는 혈연적 유대의식과 농업을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마을구성원들 간의 지연적 연대의식이 공동체적 전통을 낳는 기반이었다. 그러나 제주는 육지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테면, 혈연적 유대의식이라 하더라도 육지부의 경우 부계친 중심의 혈연공동체에 바탕하였다면, 제주는 친가·외가·처가를 포함하는 폭넓은 ‘권당²⁾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였다. 이러한 제주적 특징을 낳은 배경에는 무엇보다 제주전통의 마을구성과 삶의 양식이 놓여 있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마을’이란 사람들이 모여 집단으로 거주하며 상부상조의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단위를 지칭한다(한필원, 2012: 19쪽). 육지부의 전통마을은 뒷산을 병풍으로 삼고 앞개울을 바라보는 배산임수(背山臨水)를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을 독립되고 자족적인 정주(定州)단위로 보지 않고, 주변 지역과 유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보았다(한필원, 2012: 23쪽). 마을구조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공동체이듯이, 마을 자체도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를 확인하고 자신을 수련하며 예를 행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예컨대, 향사례(鄕射禮)나 향음주례(鄕飮酒禮)와 같은 마을 행사는 구성원들 간의 예의 수련과 감정의 공유성을 확인하는 행사였고, 두레나 품앗이는 노동을 상부상조하는 부조문화의 전통이었다.

2) 권당(眷黨)의 제주방언. 권당은 자기의 혈족과 혼인관계를 통해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을 뜻하는 친척이지만, 제주방언인 ‘권당은 이러한 친족의 범위를 넘어 친가, 외가, 처가를 포괄하고 심지어 동네 이웃을 친족의 용어로 부르며 ‘권당처럼 여기기도 한다.

그런데 육지부의 전통마을에는 위계적 질서도 있었다. 전통마을이 양반마을인 반촌과 일반 농촌마을로 나뉘고, 전통주택도 양반주택인 반가와 서민주택인 민가로 나뉘는 것은 마을구조의 위계성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몇 개의 씨족집단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씨족마을도 있었다. 종갓집을 중심으로 일가친척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씨족마을은 혈연공동체이면서 마을공동체를 아우르는 모습이다. 이처럼 육지부의 전통마을의 구조에는 마을단위의 씨족 중심의 가족공동체와 다르지 않은 화수회적 문화가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육지부에서는 문중(종친)회가 일찍부터 발달하고, 논농사를 주업으로 삼는 서민계층을 중심으로 두레와 품앗이 같은 부조문화가 발달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육지부처럼 씨족마을도 없고, 양반마을과 일반농촌마을의 구분도 없으며, 상대적으로 양반주택과 서민주택의 경계도 그리 뚜렷하지 않았다고 전한다(김정기·김홍식, 1977: 264-265쪽). 세거리 집, 네거리 집을 보유한 집안이 있었지만, 그것은 기능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문중(종친)조직은 양반가문 중심의 씨족공동체를 바탕으로 발달하는 것이겠지만, 제주에서 그것이 발달하지 못했던 것은 반서의 경계가 별로 없었던 점도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대신 제주 특유의 마을 구성과 녹록치 않은 삶의 여건이 공동체적 전통과 상호 부조하는 조직들을 탄생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제주에는 행정으로 구분한 리(里)로는 172개의 마을이 있지만, 자연발생적인 부락으로 구분하면 대략 500여 개 이상의 마을이 있었다. 육지부의 배산임수(背山臨水)와 달리, 해안가와 해발 200m 이상의 중산간(中山間)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인 마을이 형성되었다. 해안가 마을에서는 어업과 농업이 주된 삶의 방식이었고, 중산간 마을에서는 농업과 목축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였다. 제주인들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화산회토로 이루어진 제주의 특이한 지리적, 자연적 여건은 삶의 양식을 얻는 데 힘겨운 노동을 요구하였다.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힘든 밭농사 일에 목축업을 겸하여 살아야 했고, 해안가 마을 사람들도 밭농사만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에 여자들은 해녀(잠수)

일을 하고 남자들은 뱃일에 종사하며 살림을 꾸려야만 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삶의 양식을 얻기 위해 제주인들은 서로 돕고 협업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 제주 특유의 ‘웬당공동체와 각종 상호부조 조직들일 것이다.

제주의 전통마을은 부락내혼으로 구성된 웬당공동체에 가까웠다. 관련 연구들은 제주의 친족제도가 육지부와 다른 측면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예컨대, 최재석(1966: 653-666쪽)은 전통적인 한국가족제도의 특성을 개인에 대한 집단의 우위성, 가장의 권위 확립, 부계친족집단의 조직화, 재산상속에서의 장남우대와 조상제사의 장남 봉사, 부녀자의 낮은 지위, 정조관념의 강화와 이혼·재혼에 대한 금기의식 등으로 규정한다. 혈연적 감정의 공유성을 전제하면서도 구성원들 간의 위계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특성이다. 이에 비하여, 제주의 가족제도는 장남분가(長男分家), 재산상속의 균분적(均分的) 경향과 조상제사의 분할, 부부중심의 가족관계와 부녀자의 자율성, 부락내혼, 이성교제의 자율성과 이혼 및 재혼의 허용, 문중조직의 약화와 친가·외가·처가를 두루 포함하는 친척관계 등이 그것이다(최재석, 1984: 9-13쪽; 이창기, 1995: 59-62쪽; 김혜숙, 1999). 이러한 제주가족은 육지부에 비해 훨씬 위계성이 덜한 특성을 보여준다. 재산의 균분상속과 제사의 분할봉사는 형제 간의 위계성이 덜하다는 뜻이고, 장남분가와 부부중심 가족관계는 상대적으로 부녀자의 자율성이 허용될 수 있는 구조이다. 경조사 시에 부부가 따로 부조(‘겹부조’라 부름)하는 전통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일 수 있다.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 동생들에 대해 아가씨, 도련님 등의 호칭을 쓰지 않는 것도 이러한 예에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부락내혼(혹은 인근부락)은 육지의 농촌지방이나 다른 도서지역에도 존재하는 혼인양식이지만 제주도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다고 전한다(최재석, 1984: 9-13쪽; 이창기, 1995: 59-62쪽; 한삼인, 1999: 291-298쪽). 동일부락이나 인접부락 내혼비율이 높다는 것은 부계친과 외가친 및 처가친이 가까이에서 함께 사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과의 사회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부계친만의 결속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문중조직도 발달할 수가 없었다. 제주에서는 대외적으로 문중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동족 성원을 통제하는 종장의 존재가 매우 희미하고 문중 일을 처리하는 데 종손이 특별히 우대되지도 않았다. 대신 상대적으로, 외가친족이나 처가친족과의 관계는 육지의 전통적인 가족에 비해 훨씬 긴밀하였다. 외가나 처가의 친족들은 제사를 제외한 사교 관계, 의례적 관계, 생산 활동의 협조, 가사활동의 협조 등 생활의 전 영역에서 부계친과의 관계와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동등하게 긴밀한 협동이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제주는 부락내혼으로 인하여 전통마을 자체가 폭넓은 친인척으로 이루어진 켄당공동체였다. “마을 내에 매남(완전한 남)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삼촌·조카라는 친척의 용어로 호칭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상호 부조하는 공동체 조직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수눔음’과 접계(接契), 향약(鄕約) 등이 그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의 접계문화이다.³⁾ 서로 하루씩 품을 주고받고 하여 가며 일을 하는 행위인 ‘수눔음’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성격보다는 앞에 닥친 일이 우선적이었다(오성찬, 1992: 129쪽). 그러나 접계는 공동의 목적을 두고 뜻을 같이 하는 구성원끼리 구성된 공동체 조직이었다. 제주의 선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10여 개 정도의 접계에 가입하였고, 그 구성원들에 의지하여 가난한 살림살이에 들이닥치는 인생의 대소사를 슬기롭게 처리하였다(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0).

3) 제주도 서부지역에서는 ‘계’, 동부지역에서는 ‘잡’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었다. 접계에는 그 조직을 이끄는 임원이 있었다, 지역이나 계의 성격에 따라 집강(執綱), 차지(次知), 소임(所任), 도가(都家), 회장(會長) 등 그 명칭이 다양하다. 접계운영에 따른 규약을 적은 문서의 명칭은 입록(立錄), 책록(冊錄), 정간(井簡), 회록(會錄), 좌목(座目) 등 시대와 기술방식이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접계의 종류는 통과의례를 비롯한 생업, 교육 등 제주사람들의 생활상이 드러나는 500여 개 이상이 발견된다(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0).

이처럼, 제주사회는 특유의 공동체 문화전통과 상호 부조하는 조직이 어느 지역보다 발달하였다. 그러나 해방이후 근대화, 민주화,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등을 거치는 긴 세월 동안 공동체적 문화전통들은 육지 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주에서도 사라져왔다고 할 수 있다. 마을구성원들도 일가친척들도 삶의 길을 찾아 도시로 흩어졌다. 남아 있는 전통 마을과 사람들의 삶의 양식도 크게 바뀌었다. 대체로 노년층들이 전통적 산업을 근근이 유지하고, 사람들의 일손도 기계가 대신한다. 제주의 경우 아직도 1차 산업 비율이 비교적 높고 비교적 젊은 층이 감귤작물이나 시설재배단지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상호 부조하는 조직 활동이나 문화는 많이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마을을 탐방하다 보면⁴⁾ 아직도 자연부락에서 옛날의 향약을 잇는 마을자치규약이 작동하고 간간히 ‘수눌음’이나 접계모임도 관찰되긴 하지만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어 연구자로서는 모르겠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오늘날 제주의 공동체적 문화전통과 상호 부조하는 조직을 잇는 것이 문중(종친)회, 동창(동문)회, 향우회 등과 같은 친목회 활동이 아닐까라는 가정을 하게 되었다. 이 조사 연구를 시도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다. 만약 이러한 조직들이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고, 그것이 부조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가정의 타당성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육지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논자가 밭 딛고 살아가는 제주지역에 국한해서라도 확인해보고 싶었다. 특히, 논자의 피상적 관찰경험으로 볼 때 제주에서 문중(종친)회, 동창(동문)회, 향우회 등의 친목회 활동과 부조문화는 유난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에서 공직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이른바 ‘권당정치’ 문화도 제주의 공동체적 문화전통과 그것을 잇는 오늘날의 친목회 활동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문도 들었다.

4) 연구자는 제주마을을 탐방하는 시민모임인 ‘마실감저’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2016년부터 월 2회 주기로 마을을 탐방했다. 대략 5년 동안 100여 개 이상의 마을을 탐방하여 마을 자연환경과 구조, 민속 및 역사유적을 돌아보고, 인물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2020년 이후에는 탐방이 중지된 상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가정과 의문을 바탕으로 문중(宗淸)회, 동창(동문)회, 향우회를 중심으로 친목회 활동과 부조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다. 육지부에서는 부계친 중심의 씨족공동체적 전통으로 문중(宗淸)회 조직이 일찍부터 시작되었겠지만, 제주에서는 부락내혼의 경향과 반서의 경계가 덜했던 이유로 문중(宗淸)회 조직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관련 연구들은 보고하였다. 관련 보고(최재석, 1966, 1977, 1984; 이창기, 1995; 김혜숙, 1999)들이 주로 1980년대 전후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제주에서 문중(宗淸)회가 발달했다면 이 시기의 일일 것이다. 향우회 조직의 발달도 대략 비슷할 것으로 추측하는데, 대체로 제주가 관광개발 등으로 도시화되고 읍면지역 마을사람들이 제주시나 서귀포시 동(洞)지역으로 유입되면서부터일 것이기 때문이다. 문중(宗淸)회와 향우회와는 달리 동창(동문)회는 해방 이후 보통교육 시대가 열리면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오늘날 관찰되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데는 다른 두 조직의 경우와 비슷하지 않을까 추정해본다. 아무래도 계산적 도시생활이나 이익 사회적 삶에서 사람들은 전통적 감정의 공유를 부르는 친목모임의 필요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 조사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제주의 친목회 조직들의 현황이나 실태를 연구하기보다는 문중(宗淸)회, 동창(동문)회, 향우회 등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친목회 활동에 대한 태도나 의식을 조사하고, 그것이 부조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도민들의 부조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친목회 조직들의 현황조사에 초점을 둔다면 직접 관련 조직들을 찾아가 실태를 조사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황이나 실태가 아니라 의식 조사에 초점을 두기에 설문을 통한 조사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정형화된 설문문항으로 조사내용을 설계하였다.

먼저, 친목회 활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내용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도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친목회 조직들의 현황과 참여 비율을 조사했다. 앞서 제주의 공동체적 문화전통과 부조문화를 잇는 것으로 가정하는 대표적인 조직으로 문중(종친)회, 동창(동문)회, 향우회를 거명했지만, 이외에도 다른 비슷한 조직들에도 참여하는 도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질문을 하는 배경은 접계문화에서 보듯이, 제주의 전통마을 사람들이 여러 개의 접계모임에 동시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과도 관련된다.

둘째, 친목회에 참여하는 도민들이 자신이 가입한 조직에 대한 참여 및 기여도를 물었다. 친목회에 가입했다고 모두 회원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는 같지 않을 것이고, 참여한 회원들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조직의 활성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조직들이 활성화되는 만큼 부조문화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친목회 조직에 참여하는 동기 내지 이유를 조사했다. 문중(종친)회, 동창(동문)회, 향우회 등의 조직들은 구성원간의 친목도모를 일차적인 존립목적으로 삼겠지만, 또한 조직마다 다른 고유목적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그러한 조직목적에 찬동하여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직목적과 무관하게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조직들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설문에서는 답변자 본인의 조직참여 동기에 대해 밝혀주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본인의 관찰이나 생각하기에 다른 회원들의 경우 조직 참여 동기가 무엇인지를 답변해보라고 질문하였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사회과학적 엄밀성을 벗어난 것일 수 있겠지만, 제한적이거나 친목회 참여하는 객관적 동기를 추론해보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친목회 활동과 정치문화가 엮여 생겨난 제주 특유의 ‘권당정치’ 문화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제주에서는 일찍부터 공직선거 국면마다 이른바 ‘권당정치’가 크게 작동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지적이 실체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문내용으로 포함하여 ‘권당정치’ 문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동시에 친목회 회원 중에 출마한

공직선거 후보자에 투표할 것인지를 물었다.

다섯째, 친목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조사했다. 이 질문은 예외적으로 개방적 질문으로 제시하여 직접 기술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부조문화에 대한 설문내용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부조문화의 전반적인 실태를 보기 위하여 문중(종친)회, 동창(동문)회, 향우회 조직들의 회원 경조사에 참여하는 범위와 정도를 조사하였다. 특히, 문중(종친)회 관련 조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조직 범위를 넘어서는 대상(외가, 처가, 사돈댁 등)까지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이는 제주의 친족구조가 육지부의 부계친중심과 달리 친가·외가·처가를 포함하는 넓은 '켄당' 공동체를 형성하고 상부상조했던 전통이 오늘날 부조문화에도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다.

둘째, 이른바 '겹부조'의 실태와 이에 대한 생각을 조사했다. 제주에서는 부부가 따로 각자 부조를 하는 '겹부조'의 전통이 있어왔다. 이는 육지부의 기족제도와 달리 제주에서 부녀자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기족제도의 특징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겹부조'는 부부가 따로 부조하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지만,⁵⁾ 여기서는 부부의 '겹부조' 전통에 초점을 두고 질문하였다.

셋째, 평균 1년 동안 지출하는 경조사비(부조금)의 실태와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친목회가 활성화되고 있다면 그만큼 친목회원들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고, 또한 그만큼 지출하는 경조사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부조문화가 활성화된 이유를 조사했다. 부조문화가 활성화된 이유가 친목회 조직의 활성화와 무관하지 않다면 이 연구가 가정했던

5) 예컨대, 결혼 혹은 상가 집에 축하나 조문 간 특정인이 혼주 및 상주의 여러 형제자매에게 동시에 부조하는 경우도 '겹부조'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겹부조' 개념의 연원은 부부가 따로 각각 부조하는 데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친목회 활동과 부조문화의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상호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부조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조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바람직한 방향을 물었다. 이 질문은 예외적으로 개방적 질문으로 제시하여 직접 기술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상의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내용

	조사 내용	설문문항번호
친목회	■ 참여하고 있는 모든 친목회 조직	1
	■ 참여하는 모든 친목회 활동에 대한 태도(참여 및 기여도)	2
	■ 문중(종친)회에 참여하는 이유(목적): 본인과 타인의 경우	3
	■ 동창(동문)회에 참여하는 이유(목적): 본인과 타인의 경우	5
	■ 향우회에 참여하는 이유(목적): 본인과 타인의 경우	7
	■ 친목회 활동과 정치문화가 연여 생겨난 ‘권당정치’ 문화에 대한 생각	13-1
	■ 친목회 회원 중 선출직 공직후보에 대한 투표 의향	13-2
	■ 친목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바람직한 방향	14
부조문화	■ 문중(종친), 친족, 사돈댁의 경조사 시 참여범위와 정도	4
	■ 동창(동문)회원의 경조사 시 참여범위와 정도	6
	■ 향우회원의 경조사 시 참여범위와 정도	8
	■ 겹부조(부부가 별도로 부조하는 것) 여부 및 이에 대한 생각	9
	■ 평균 1년 동안 지출하는 경조사비(부조금)	10
	■ 평균 1년 동안 지출하는 경조사비(부조금)에 대한 생각	11
	■ 부조문화가 활성화된 이유	12
	■ 부조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바람직한 방향	15

이상의 조사내용을 위해 정형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정하였다. 이후 설문지를 리서치 전문기관⁶⁾에 의뢰하여 1:1 개별 면접조사법으로 조사토록 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을 제주시 동(洞) 지역으로 국한했는데, 이는 제주에서 향우회가 조직되고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력지역이기 때문이다. 사실 도민의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시 동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도 대상으로 삼아야겠지만, 연구여

6)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소장 김대호).

건의 제약 상 지역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연구의 한계가 될 것이다. 조사대상 인원은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 300명을 임의 추출하였는데, 이중 164명은 제주시 동지역 출신자이고, 나머지 121명은 읍면 지역 및 서귀포시 동지역 출신자이며, 15명은 도외 출신자였다. 조사기간은 2022년 11월 한 달 동안이었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Win프로그램(Ver. 22.0)으로 전산처리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별 조사대상 응답자의 특성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 응답자의 특성

표본의 구성		전체	
		빈도수(명)	백분율(%)
		300	100
연령	30~39세	48	16.0
	40~49세	55	18.3
	50~59세	75	25.0
	60~69세	60	20.0
	70세 이상	62	20.7
성별	남성	149	49.7
	여성	151	50.3
학력	무학, 초등학교 졸업	14	4.7
	중학교 졸업	34	11.3
	고등학교 졸업	132	44.0
	대학교 이상 졸업	120	40.0
거주지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2동, 건입동	60	20.0
	일도2동, 이도2동	73	24.3
	아라동, 오라동	52	17.3
	노형동, 연동	32	10.7
	외도동, 도두동, 이호동	27	9.0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56	18.7
출신지역	제주시 동지역	164	54.7
	제주시 서부 읍면지역	47	15.7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	27	9.0
	서귀포시 동지역	15	5.0
	서귀포시 서부 읍면지역	21	7.0
	서귀포시 동부 읍면지역	11	3.7
	도외지역	15	5.0
월소득	3,000만원 이하	154	51.3
	3,000~4,000만원	80	26.7
	4,000~5,000만원	47	15.7
	6,000만원 이상	19	6.3

Ⅲ. 조사결과 및 논의

연구자의 의뢰에 따라 리서치 전문기관이 조사하고 분석한 기초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논문이라는 지면의 한계로, 인구사회통계변인들과 교차분석한 세부결과표를 자세히 제시하기는 힘들다. 이십지만 이후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밝힐 기회를 기약한다. 그러나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약간의 특징을 언급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1. 친목회 활동에 대한 의식

1) 회원으로 가입한 친목회 및 참여비율

제주도민들이 가입한 친목회 조직과 그 참여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표 3>처럼 참여하는 친목회에 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사회과학(통계학)적 엄밀성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기서는 비공식 조직의 친목회 모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50% 이상이면 높은 활성화로 평가하고자 한다.

<표 3> 참여하는 친목회 조직 및 참여비율

		참여(%)	비참여(%)
문중(종친)회 (전체 300명)	입도조 문중회	54(18.0%)	246(82.0%)
	파조 종친회	34(11.3%)	266(88.7%)
	지역(시, 읍면동)종회	44(14.7%)	256(85.3%)
동창(동문)회 (전체 300명)	초등학교 동창(동문)회	188(62.7%)	112(37.3%)
	중학교 동창(동문)회	136(45.3%)	164(54.7%)
	고등학교 동창(동문)회	128(42.7%)	172(57.3%)
	대학교 이상 동창(동무)회	70(23.3%)	230(76.7%)
향우회 (제주시 동지역 외 출신자 121명, 도의 출신자 15명)	고향마을(리 단위) 향우회	75(62.0%)	46(38.0%)
	읍면 단위 향우회	28(23.1%)	93(76.9%)
	도 단위 향우회(도의 출신)	12(80.0%)	3(20.0%)
기타 친목회 (전체 300명)	직장 내 동창회 및 향우회, 갑장회, 퇴역전우회 등	145(48.3%)	155(51.7%)

문중(종친)회에 가입한 도민은 응답자 300명 중에서 전체 평균 44명(14.7%)만이 참여하고 있다. 그나마 입도조 문중회에 참여하는 응답자는 54명(18.0%)이다. 문중(종친)회 참여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전부터 제주가 육지부와 달리 문중과 종가에 대한 일방적 존숭보다는 친가, 처가, 외가를 두루 포괄하는 권당들을 소중히 여겨왔던 전통과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변인별 교차분석 자료에 의하면, 문중(종친)회에는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창(동문)회에 가입한 도민은 전체 평균 130.5명(43.5%)으로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동창(동문)회 참여비율은 62.7%로 매우 높으며, 중학교 동창(동문)회 45.3%, 고등학교 동창(동문)회 42.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동창(동문)회 참여비율이 높은 것은 나고 자란 고향마을의 학교에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과 감정을 공유했던 추억이 많기 때문이라 여긴다. 변인별 교차분석 자료에 의하면, 동창(동문)회에도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동창(동문)회에 참여하는 여성비율도 만만치 않다(남성 67.1%, 여성 58.3%). 초등학교 동창(동문)회의 경우 설립된 지 오래된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거주자,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출신자의 참여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고등학교 동창(동문)회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

향우회의 경우는 제주시 동지역 외 출신자(121명)과 도외 출신자(15명)를 고려해서 분석해야 한다. 도 단위를 제외한 향우회에 가입한 도민은 121명 중의 51.5명이므로 평균 참여비율은 42.6%로 볼 수 있다. 평균으로 보아도 향우회에 가입한 참여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고향마을(리 단위) 향우회는 75명(62%)인 매우 높은 참여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응답자로 도외지역 출신자는 15명에 불과했지만, 이 중 12명이 도 단위 향우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무려 80%의 참여비율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렇게 고향마을 향우회와 도 단위 향우회에

참여비율이 높은 것은 출신 고향에 대한 감정의 공유성이 높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연장선에서 28명(23.1%)이지만 읍면 단위 향우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점도 주목된다. 변인별 교차분석 자료에 의하면, 향우회에도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 친목회(직장 내 동창회 및 향우회, 갑장회, 전우회 등)에 참여하는 비율도 145명(48.3%)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참여모임 개수는 참여자 평균적으로 2.64개이고 최대는 무려 20개의 모임에 참여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는 마치 제주전통 마을 구성원들이 여러 개의 접계 모임에 동시에 가입하고 활동했던 현상을 떠올리게 한다.

전체적으로 문중(종친)회 참여비율은 낮으나 동창(동문)회나 향우회는 참여율이 높고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동창(동문)회와 고향마을 향우회는 매우 높음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2) 참여하는 친목회 활동에 대한 태도

그러나 친목회에 가입한 참여비율이 친목회 활동의 활성화 여부를 전부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친목회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참여하는 친목회의 활동에 어떤 태도로 참여하고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친목회 회원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해당 친목회는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목회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친목회 활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참여하는 친목회 활동에 대한 태도(회의 및 행사 참여, 조직 기여도 등)에 대해 아래의 <표 4>처럼 보기 항에 표시해줄도록 요구하였다.

〈표 4〉 참여하는 친목회 활동에 대한 태도

	세부 친목회명 (참여자수)	매우 적극적인 편	비교적 적극적인 편	비교적 소극적인 편	매우 소극적인 편
문중 (종친회)	입도조 문중회 (54명)	7(13.0%)	15(27.8%)	25(46.3%)	7(13.0%)
	파조 종친회 (34명)	3(8.8%)	21(61.8%)	9(26.5%)	1(2.9%)
	지역(시읍면동)종회 (44명)	4(9.1%)	12(27.3%)	16(36.4%)	12(27.3%)
동창 (동문)회	초등학교 (188명)	54(28.7%)	102(54.3%)	27(14.4%)	5(2.7%)
	중학교 (136명)	32(23.5%)	75(55.1%)	26(19.1%)	3(2.2%)
	고등학교 (128명)	26(20.3%)	67(52.3%)	29(22.7%)	6(4.7%)
	대학교 이상 (70명)	17(24.3%)	38(54.3%)	12(17.1%)	3(4.3%)
향우회	고향마을(리 단위) (75명)	14(18.7%)	36(48.0%)	23(30.7%)	2(2.7%)
	읍면 단위 (28명)	2(7.1%)	15(53.6%)	10(35.%)	1(3.6%)
	도 단위 (12명)	2(16.7%)	3(25.0%)	4(33.3%)	3(25.0%)
기타 친목회	직장 내 동창 및 향후회, 갑장회 등 (145명)	44(30.3%)	66(45.5%)	25(17.2%)	10(6.9%)

문중(종친)회 참여자들의 경우 파조 종친회 70.6%, 입도조 문중회 40.8%, 지역 종회 36.4% 순으로 적극적 참여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49.3%가 문중(종친)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하고 있다. 문중(종친)회의 회원은 많지 않지만, 가입한 회원들은 비교적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인별 교차분석 자료에 의하면,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다.

동창(동문)회 참여자들의 경우 초등학교 83%, 대학교 이상 78.8%, 중학교 78.6%, 고등학교 72.6%순으로 적극적 참여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78.3%가 동창(동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동창(동문)회에는 가입한 회원도 많고 회원들의 활동도 매우 적극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동창(동문)회는 매우

높음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친목회 조직이라 하겠다. 특히 가입자 수가 많은 초등학교 동창(동문)회는 그렇다. 변인별 교차분석 자료에 의하면,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고등학교나 대학 이상의 동창(동문)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향우회 참여자들의 경우 고향마을 66.7%, 읍면 단위 60.7%, 도 단위 41.7%순으로 적극적 참여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56.4%가 향우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향우회 가입자들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일단 가입한 회원들의 활동은 매우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향마을 단위 향우회에는 가입자도 많고 활동도 훨씬 적극적이다. 변인별 교차분석 자료에 의하면,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다. 연령변인에서는 고향마을 향우회에는 50대가, 읍면과 도 단위에서는 60대 이상이 더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친목회에는 가입한 자들도 비교적 많고(48.3%), 가입한 회원들의 활동과 태도도 매우 적극적(75.8%)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인별 교차분석 자료에 의하면, 연령과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40대와 50대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친목회 조직에서 가입한 회원 수와 상관없이 회원들의 태도는 매우 적극적인 편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동창(동문)회와 고향마을 향우회는 가입회원도 많고 회원들의 태도도 매우 높음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에서 친목회 활동은 높음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친목회에 참여하는 이유(목적)

그렇다면 도민들이 친목회 조직에 참여하는 동기나 이유(목적)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응답자 본인의 참여이유를 답하게 하는 동시에

응답자가 보기에 다른 회원들의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은지 견해를 밝혀보라고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친목회의 고유목적에 찬동하여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조직의 고유목적과 무관하게 다른 동기로 조직들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목회에 참여하는 본인이 친목회 고유목적 이외의 이유로 참여한다고 답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친목회 참여의 객관적 이유를 추론해보기 위해 참여자 본인이 관찰이나 경험으로 볼 때 다른 회원들의 참여 동기가 무엇인지를 답변해보도록 했다.

〈표 5〉 문중(종친)회에 참여하는 이유(목적)

	본인의 경우 (102명)	다른 사람의 경우 (242명)
①문중(종친) 조상을 존중하고 기리기 위해	44(14.7%)	47(19.4%)
②문중(종친) 회원 간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	32(10.7%)	62(25.6%)
③인간관계를 넓히고 나를 알리기 위해	5(1.7%)	20(8.3%)
④개인적 삶이나 사업 등에서 문중(종친)의 도움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3(1.3%)	46(19.0%)
⑤제주의 공동체적 문화전통과 관습 때문에	18(6.0%)	67(27.7%)

문중(종친)회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응답한 102명(응답률 34%)의 본인이 밝힌 문중(종친)회에 참여하는 이유(목적)는 ① 14.7%, ② 10.7%, ⑤ 6.0%순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242명(응답률 80.6%)이 답했는데, 조사결과는 ⑤ 27.7%, ② 25.6%, ① 19.4% ④ 19.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중(종친)회에 참여하는 본인들은 문중(종친)회의 조직목적에 걸맞은 동기로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문중(종친)회 조직목적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⑤제주의 공동체적 전통과 관습 때문이거나, ④ 개인적 삶이나 사업에서 도움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문중(종친)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회원들도 있다는 것이다. 이중 27.7%가 제주의 접계문화 등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적 문화전통 때문에 친목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기는 점은 주목된다.

〈표 6〉 동창(동문)회에 참여하는 이유(목적)

	본인의 경우 (267명)	다른 사람의 경우 (294명)
①학창시절을 추억하고 모교를 기리기 위해	38(12.7%)	28(9.5%)
②동창(동문) 회원 간의 우정을 나무며 친목도모를 위해	195(65.2%)	148(50.5%)
③인간관계를 넓히고 나를 알리기 위해	14(4.7%)	30(10.2%)
④개인적 삶이나 사업 등에서 문중(종친)의 도움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9(3.0%)	63(21.4%)
⑤제주의 공동체적 문화전통과 관습 때문에	11(3.7%)	25(8.5%)

동창(동문)회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응답한 267명(응답률 89%)의 본인이 밝힌 동창(동문)회에 참여하는 이유(목적)는 ② 65.2%, ① 12.7%순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동창(동문)회에 295명(98%)이 답했는데, 조사결과는 ② 50.5%, ④ 21.4%, ③ 10.2%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인들은 동창(동문)회의 조직목적에 걸맞은 동기로 참여하고 있지만, 타인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본인들이 보기에 31.6%의 타인들은 ④개인적 삶이나 사업 등에서 도움이나 이익을 얻거나, ③인간관계를 넓히고 나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동창(동문)회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든 타인이든 동창(동문)회 참여이유로 ⑤제주의 공동체적 문화전통이나 관습과는 별로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은 문중(종친)회의 경우와 대비된다. 동창(동문)회는 보통교육 시대 이후에 생긴 조직이라는 반증일 것이다. 요컨대, 동창(동문)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친목회 고유목적에 찬동하기 때문이지만 개인적 동기(이익, 나를 알리)도 담겨 있다.

〈표 7〉 향우회에 참여하는 이유(목적)

	본인의 경우 (95명)	다른 사람의 경우 (300명)
①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고향(마을, 읍면동 등)을 기리기 위해	33(11.0%)	29(9.7%)
②향우회원 간의 우정을 나누며 친목도모를 위해	39(13.0%)	116(38.7%)
③인간관계를 넓히고 나를 알리기 위해	4 (1.3%)	37(12.3%)
④개인적 삶이나 사업 등에서 문중(종친)의 도움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7(2.3%)	62(20.7%)
⑤제주의 공동체적 문화전통과 관습 때문에	12(4.0%)	56(18.7%)

향우회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응답한 95명(응답률 69.9%, 제주시 동지역 외 출신자 136명 기준)의 본인이 밝힌 향우회에 참여하는 이유(목적)는 ② 13.0% ① 11.0%순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300명 모두가 답했는데, 조사결과는 ② 50.5%, ④ 20.7%, ⑤ 18.7%, ③ 12.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인들은 향우회의 조직목적에 걸맞은 동기로 참여하고 있지만, 타인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향우회 조직목적에 따라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④개인적 삶이나 사업에서 도움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향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⑤제주의 공동체적 전통과 관습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향우회에 참여하는 동기는 향우회 고유목적, 개인적 이익, 공동체적 전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친목회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목적)은 특정 친목회 조직의 목적에 걸맞은 동기로 참여한다. 실제로 친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 본인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경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여긴다. 문화전통의 관습 때문이거나 개인적 이익이나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친목회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4) ‘권당정치’ 문화에 대한 생각과 투표의향

정치영역은 공공성과 합리성이 작동해야 하는 마당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한국정치는 선거 때마다 지역주의와 연고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일찍부터 선거 국면마다 이른바 ‘권당’정치가 크게 작동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친목회가 활성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권당정치’ 문화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친목회 회원 중에 선출직 공직후보(도지사, 교육감, 국회의원, 도의원 등)에 출마할 경우 그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표 8〉 ‘퀘당정치’문화에 대한 의견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15(5.0%)	62(20.7%)	151(50.3%)	50(16.7%)	22(7.3%)

조사대상 응답자 300명의 전체 의견은 보통(50.3%), 긍정적(20.7%), 부정적(16.7%)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의 대비는 25.7% 대 24.0%로 거의 차이가 없다.

변인별 교차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성별에서 여성(21.8%)보다는 남성(26.2%)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연령별로 부정보다 긍정적 견해를 밝힌 연령은 70대 이상(32.2%), 50대(28.0%), 40대(27.3%)순으로, 반대로 긍정보다 부정적 견해를 밝힌 연령은 30대(43.7%), 60대(26.7%)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저학력자는 부정보다 긍정적 견해가 높고(초등이하졸업 41.1%, 중학교졸업 35.3%, 고등학교졸업 20.5%),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는 부정적 견해(31.7%)가 높다. 소득별로 부정보다 긍정적 견해를 밝힌 자는 6,000만원 이상(52.6%), 4,000~5,000만원(38.3%), 3,000만원 이하(26.6%)순으로 나타났고, 3,000~4,000만원 소득자 그룹만 긍정(14.4%)보다는 부정적 견해(26.6%)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퀘당정치’에 대해 긍정 대 부정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여성, 저학력자, 소득이 높거나 낮을수록 긍정적인 반면 남성, 고학력자, 중산층은 부정적이다. 연령에서 30대와 60대는 부정적이고 나머지는 긍정적인데, 30대는 합리적인 젊은 층이고 60대는 민주화 경험세대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9〉 선출직 공직후보에 출마한 친목회 회원에게 투표할 의향

① 우리회원이라면 반드시 그에게 투표할 것이다	19(6.3%)
② 우리회원이라 하더라도 친분 정도를 고려하여 투표할 것이다	30(10.0%)
③ 그동안 조직에 기여해온 정도를 고려하여 투표할 것이다	48(16.0%)
④ 우리회원이고 인물 됴됨이나 정책이 좋다면 투표할 것이다	123(41.0%)
⑤ 우리회원인지 여부는 투표에서 고려사항이 아니다	80(26.7%)

조사대상 응답자 300명의 전체 의견은 ④ 41.0%, ⑤ 26.7%, ③

16.0% 순으로 나타났다. 교차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연령, 학력, 소득 수준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연령에서 30대는 ⑤ 50.0%, ④ 22.9% 순인 반면, 60대에서 ④ 36.7%, ⑤ 30.0% 순으로 역전되고, 나머지 세대에서는 ④와 ⑤간의 응답률 차이가 훨씬 벌어지고 있다. 학력에서 초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21.4%는 ①에 응답하고 있다면, 중학교 졸업자는 ④에 응답하는 비율(55.9%)이 매우 높다. 6,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서 ⑤에 응답한 이는 없는 반면 ①에 응답한 비율은 26.3%나 된다.

전반적으로 저학력자와 고소득자는 ①에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30대 젊은 층은 ⑤에 응답비율이 높고 나머지는 대체로 ④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앞의 ‘권당정치’ 문화에 대한 의견에서 긍정적일수록 공직후보 투표의향에서도 ④와 ②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경향과도 일치해 보인다.

‘우리회원이고 인물 됴됨이나 정책이 좋다면 투표할 것’이라는 ④의 의견은 상호부조문화의 공동체적 전통과 오늘날 합리성의 문화가 습합된 공동체적 개인주의(합리주의) 문화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원래 제주의 공동체적 문화가 공동체중심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적 개인주의 혹은 개인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경향이 있었음을 관련 연구들은 보고해왔다. 예컨대, 송성대(2001: 665)는 제주문화의 특징으로 ‘개체적 대동주의’를 주장한다.⁷⁾ 논자도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면서, 제주문화

7) 송성대의 주장을 잠시 보자. “해민정신(海民精神: Seamanship), 즉 개체적 대동주의(個體的 大同主義, Individual Corporativism)가 제주인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자연적 언어가 되는데, 이 언어는 특수와 보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언어임이 확인된다. (중략) 가장 제주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제주인의 개체적 대동주의(해민정신)에서의 ‘개체주의’는 균분상속제, 곁부조, 따포가족제, 듀플렉스형 하우스, 수눌음(계약주의), 실력주의, 높은 이혼율, 이동생활지향, 혼성취락, 배분적 정의 실천 등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대동주의는 공동목장, 공동어장, 공동개와, 공동 원, 공동옹기가마, 공동샘물, 공동방아, 본향당, 뱃동료의식, 품종구휼, 할망바당, 권당 그리고 오늘날의 컨벤션센터, 샘물공장 설립 운영, 분배적 정의 실천 등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이 모두를 합치면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될 것이다.”(송성대, 2001: 665). 논자는 송 교수의 주장에서 개체적 대동주의를 해민정신으로 명칭하는 것에는 찬동하지 않지만, 개체적 대동주의

는 개인주의적 합리성과 공동체주의적 온정성을 통섭시키는 묘합성(妙合性)의 문화문법을 가져왔다고 주장해온바 있다(강봉수, 2020: 217). ④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이러한 제주의 문화전통이 오늘날 정치영역에서 재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과 합리성이 작동해야 하는 정치마당에서 이러한 도민의식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여하튼, 30대 젊은 층을 제외하면 앞으로도 ‘권당정치’ 문화는 공직선거에서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 친목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친목회 활동과 관련한 견해를 종결짓는 의미에서 친목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특히, 부정적이라 생각한다면 그 이유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도 직접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듯 친목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의견(9.3%)이 낮은 탓인지 부정적 이유와 바람직한 방향을 적시 해준 응답자는 없었다.

〈표 10〉 친목회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9(3.0%)	73(24.3%)	190(63.3%)	19(6.3%)	9(3.0)

조사대상 응답자 300명의 전체 의견은 보통(63.3%), 긍정적(24.3%), 부정적(6.3%)순으로 나타났다.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은 27.3% 대 9.3%로 긍정적 응답이 훨씬 많다. 부정적 답변을 제외하면 90.6%가 친목회 활동에 허용적이거나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변인별 교차분석 자료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이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하여 볼 때, 제주에서 친목회 활동은 높음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된다.

라는 관점 자체에는 동의하는 편이다.

2. 부조문화에 대한 의식

1) 경조사 시 참여범위와 정도

문중(종친)회, 동창(동문)회, 향우회로 대표되는 친목회 회원 중에 경조사가 났을 때 참여범위와 부조정도를 알아보았다. 부가적으로, 제주 는 친가, 처가, 외가를 두루 포함하는 넓은 권당공동체를 형성했고 상호부조의 전통이 있어왔던 점에 유의하여 이를 조사에 포함시켰다.

〈표 11〉 문중(종친), 친족, 사돈댁의 경조사 시 참여범위와 정도

		가능한 모든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모든 경조사에 가고 싶지만 선별적으로 참여	반드시 챙겨야 할 경조사에만 소극적으로 참여	참여하지 않음
문중(종친)회원		11(3.7%)	25(8.3%)	43(14.3%)	221(73.7%)
친가 권당	9촌 이상	15(5.0%)	26(8.7%)	52(17.3%)	207(69.0%)
	8촌 이내	120(40.0%)	103(34.3%)	40(12.3%)	37(12.3%)
처가 권당	6촌 이상	30(10.0%)	32(10.7%)	53(17.7%)	185(61.7%)
	5촌 이내	107(35.7%)	83(27.7%)	44(14.7%)	66(22.0%)
외가 권당	6촌 이상	29(9.7%)	37(12.3%)	56(18.7%)	178(59.3%)
	5촌 이내	107(35.7%)	98(32.7%)	51(17.0%)	44(14.7%)
사돈댁	4촌 이상	37(12.3%)	25(8.3%)	56(18.7%)	182(60.6%)
	3촌 이내	125(41.7%)	78(26.0%)	35(11.7%)	62(20.7%)

문중(종친)회에는 가입한 회원이 많지 않았고(14.7%), 그나마 입도조 문중회가 약간 활성화된 편이었다. 응답자들은 회원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답하였는데, 73.7%의 대다수가 문중회원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며 참여하더라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경조사에만 소극적으로 참여’(14.3%)하거나 ‘모든 경조사에 가고 싶지만 선별적으로 참여’(8.3%)하는 정도이다. 이로 보아 문중(종친)회 내부에서 부조문화는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친가권당의 경우 9촌 이상 친척의 경조사에는 69%의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8촌 이내 친척의 경조사에는 ‘가능한 모든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40.0%), ‘모든 경조사에 가고 싶지만 선별적으로

참여(34.3%)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74.3%의 대다수가 경조사에 참여한다. 처가권당의 경우 6촌 이상의 친척의 경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거나’(61.7%) ‘반드시 챙겨야 할 경조사에만 소극적으로’(12.3%) 참여한다. 그러나 5촌 이내 처가권당의 경조사에는 ‘가능한 모든 경조사에 적극적으로’(35.7%) 혹은 ‘선별적으로’(27.7%)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가권당의 경우 6촌 이상 친척의 경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거나’(59.3%) ‘반드시 챙겨야 할 경조사에만 소극적으로’(18.7%) 참여한다. 그러나 5촌 이내의 외가권당의 경조사에는 ‘가능한 모든 경조사에 적극적으로’(35.7%) 참여하거나 ‘선별적으로’(32.7%) 참여하고 있다. 사돈댁의 경우 4촌 이상 사돈의 경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거나’(60.6%) ‘반드시 챙겨야 할 경조사에만 소극적으로’(18.7%) 참여한다. 그러나 3촌 이내 사돈의 경조사에는 ‘가능한 모든 경조사에 적극적으로’(41.7%) 참여하거나 ‘선별적으로’(26.0%) 참여하고 있다.

요약하여, 문중(종친)회원의 경조사에는 참여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8촌 이내 친가권당, 6촌 이내 처가 및 외가권당의 경조사, 그리고 3촌 이내 사돈댁의 경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9촌 이상의 친가(31.0%), 6촌 이상의 처가(38.4%)와 외가(40.7%), 4촌 이상의 사돈댁(39.3%)의 경조사에도 선별적 혹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로 보아, 문중(종친)회의 활성화 여부와 상관없이, 권당공동체 내에서 부조문화의 전통이 아직도 비교적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2〉 동창(동문) 회원의 경조사 시 참여범위와 정도

	가능한 모든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모든 경조사에 가고 싶지만 선별적으로 참여	반드시 챙겨야 할 경조사에만 소극적으로 참여	참여하지 않음
초등학교 동창(동문)회	107(35.7%)	68(22.7%)	38(12.7%)	87(29.0%)
중학교 동창(동문)회	56(18.7%)	68(22.7%)	40(13.3%)	136(45.3%)
고등학교 동창(동문)회	44(14.7%)	62(20.7%)	48(16.0%)	146(48.7%)
대학 이상 동창(동문)회	25(8.3%)	41(13.7%)	22(7.3%)	212(70.7%)

동창(동문)회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응답한 비율이다. 초등학교 동창(동문)회는 매우 높음으로 활성화되어 있고(62.7%), 나머지도 대체로 그렇다. 이러한 점이 부조문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초등학교 동창(동문)회원 경조사의 경우 '가능한 모든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35.7%), '참여하지 않음'(29.0%), '모든 경조사에 가고 싶지만 선별적으로 참여'(22.7%) 순으로 나와 58.4%의 많은 다수가 경조사에 참여한다. 나머지 동창(동문)회원 경조사의 경우 중학교 41.4%, 고등학교 35.4% 순으로 많이 참여하고, 대학교 이상은 22.0% 정도의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표 13〉 향우 회원의 경조사 시 참여범위와 정도

	가능한 모든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모든 경조사에 가고 싶지만 선별적으로 참여	반드시 챙겨야 할 경조사에만 소극적으로 참여	참여하지 않음
고향마을 향우회	36(26.5%)	57(41.9%)	40(29.4%)	3명(2.2%)
읍면 단위 향우회	9(6.6%)	30(22.1%)	25(18.4%)	72(52.9%)
도 단위 향우회	6(4.4%)	9(6.6%)	13(9.6%)	108(79.4%)

향우회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 출신자(164명)를 제외한 136명을 대상으로 참여비율을 재 산정했고, 향우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응답한 것이다. 고향마을 향우회는 비교적 활성화되었지만(55.1%),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점이 부조문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고향마을 향우회원의 경조사에는 '선별적으로'(41.9%), '소극적으로'(29.4%), '선별적으로'(26.5%)으로 대부분 참여한다. 그러나 읍면 단위 향우회원의 경조사에는 '선별적으로'(22.1%), '소극적으로'(18.4%) 참여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참여하지 않는다. 도외 출신자로 응답에 참여한 자는 15명이었는데, 응답률은 표처럼 나와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2) ‘겹부조’에 대한 견해

부부가 별도로 부조하는 ‘겹부조’ 문화는 제주만의 독특한 전통의 하나이다. 그래서 ‘겹부조’를 하는지의 여부와 이러한 겹부조 문화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다.

〈표 14〉 겹부조를 하는지 여부

① 안 하고, 부부 중 한사람이 대표로 한다	63(21.5%)
②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한다	98(33.4%)
③ 가능하면 반드시 하는 편이다	28(9.6%)
④ 우리 일에 겹부조를 했던 사람에겐 한다	104(35.5%)

아직 결혼하지 않은 7명을 제외하고 293명(응답률 97.7%)의 기혼자가 응답에 참여했는데, 겹부조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④ 35.5%, ② 33.4%, ① 21.5% 순으로 응답하였다. 아직도 제주인들의 78.5%의 대다수는 겹부조를 하거나 선별적으로 하고 있다. 변인별 교차분석 자료에 의하면,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겹부조를 더 하는 편이다. 예컨대, ③에 대한 남성 대 여성의 응답비율은 6.8% 대 12.4%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져야 할 것인가?

〈표 15〉 겹부조 문화에 대한 견해

① 바람직한 문화전통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	15(5.0%)
②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라져야 할 문화이다	153(51.0%)
③ 그냥 개인들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둬야 한다	132(44.0%)

겹부조 문화에 대해 51.0%의 도민들은 사라져야 할 문화로 여기지만, 49%의 도민들은 계승해 나가거나(5%) 자율적 의사에 맡겨둬야 한다(44%)고 생각한다.⁸⁾ 이로 보아,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은 쉽게 사라지지

8) 겹부조 문화에 대해서는 1996과 2019년에도 조사한 적이 있다.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총국과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는 도민 505명을 대상으로 제주인의 의식을 조사했는데, 여기서 겹부조를 다뤘다. 79.5%가 겹부조의 문제점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차분석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수준 3,000만원 이하에서 겹부조 문화는 사라져야 할 전통이라 응답하는 비율이 높다. 겹부조로 인한 부담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수준 4,000만원 이상에서 전통을 계승해 가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데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3) 연평균 지출 경조사비에 대한 생각

연평균 경조사비는 얼마나 지출하고 있을까? 또한 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이 점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지출한 연평균 경조사비 및 그로 인한 부담정도를 물어보았다. 응답률은 100%이다.

〈표 16〉 연평균 지출 경조사비

50만원 이하	50~100만원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만원 이상
62(20.7%)	105(35.0%)	68(22.7%)	34(11.3%)	31(10.3%)

연평균 경조사비는 50~100만원 35.0%, 100~200만원 22.7%, 50만원 이하 20.7%, 200만원 이상 10.3% 순으로 나타났다. 대략 57.7%이상의 도민이 100만원 내외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인별 교차분석 자료에 의하면 연령에서 40~60대,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느끼는 부담 정도는 어떨까?

지적하였다(김향원 외 3명, 1996: 74).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의 결혼문화 실태를 조사했는데 여기서 겹부조를 다뤘다. 도민 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5%가 겹부조 풍속이 부담되고, 71.3%가 사라져야할 풍습이라 답했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9..*여기서는 <https://www.news1.kr/articles/?3619904> 참조).

〈표 17〉 연평균 지출 경조사비에 대한 부담 정도

매우 부담이 많다	비교적 부담이 많다	보통이다	비교적 부담이 적다	거의 부담이 없다
39(13.0%)	150(50.0%)	101(33.7%)	8(2.7%)	2(0.7%)

연평균 지출하는 경조사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비교적 부담이 많다’ 50.0%, ‘보통이다’ 33.7%, ‘매우 부담이 많다’ 13.0% 순으로 나타났다. 60.0% 이상의 도민들이 연평균 경조사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인별 교차분석 자료에 의하면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 정도가 크다고 여기고 있다.

4) 부조문화가 활성화된 이유

제주에서 부조문화가 활성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자는 발달한 친목회 활동이 부조문화의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 가정했지만, 실제 조사결과는 그렇지 않게 나왔다. 응답률은 100%이다.

〈표 18〉 부조문화가 활성화된 이유

① 다양한 친목회 조직과 모임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14(4.7%)
② 경조사에 부조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라고 여기기 때문에	137(45.7%)
③ 내가 부조한 만큼 나도 되돌려 받을 것이란 기대 때문에	40(13.3%)
④ 주변 눈치 보기와 허례허식이 강한 때문에	33(11.0%)
⑤ 제주의 공동체적 문화전통과 관습 때문에	76(25.3%)

조사결과 ② 45.7%, ⑤ 25.3%, ③ 13.3%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친목회 조직과 모임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는 고작 4.7%에 불과하다. 부조문화가 발달한 이유에 대해 71% 이상이 당연한 예의이거나 공동체적 문화전통 때문이라 여기고 있다. 관습적 규범이나 도덕적 이유가 부조를 하는 동기인 셈이다. 변인별 교차분석 자료에 의하면 출신지역별로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 사람들이 ‘제주의 공동체적 문

화전통을 이유로 든다면, 서귀포시 동지역과 동부 읍면지역 사람들은 ‘당연한 예의’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학력별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자가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면, 초등학교 이하 졸업자는 ‘허례허식’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점도 주목된다.

조사결과로만 보면, 친목회 활동과 부조문화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중(종친)회원 및 친척 간의 부조문화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창(동문)회나 향우회의 경우에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앞서 보았듯이, 이 두 경우에서 친목회 구성원들의 경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부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5) 부조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부조문화와 관련한 견해를 종결짓는 의미에서 부조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특히, 부정적이라 생각한다면 그 이유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도 직접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듯 친목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의견(11.6%)이 낮은 탓인지 부정적 이유와 바람직한 방향을 적시해준 응답자는 없었다.

〈표 19〉 부조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8(2.7%)	72(24.0%)	185(61.7%)	31(10.3)	4(1.3%)

조사대상 응답자 300명의 전체 의견은 보통(61.7%), 긍정적(26.7%), 부정적(11.6%)순으로 나타났다. 긍정 대 부정의 비율은 26.7% 대 11.6%로 긍정적 응답이 훨씬 많다. 부정적 답변을 제외하면 88.4%가 현재의 부조문화에 대해 허용적이거나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변인별 교차분석 자료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조문화의 경향은 계속 이어

질 것으로 전망한다.

IV. 결론

이 연구는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친목회 활동과 부조문화에 대한 의식을 설문조사법을 활용하여 조사한 것이다. 문중(종친회), 동창(동문)회, 향우회를 중심으로 각종 친목회 활동에 참여하는 규모나 이유, 그것이 부조문화에 미치는 영향, 부조하는 범위나 이유, 친목회 활동과 부조문화의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문중(종친)회 가입 및 참여비율은 낮고, 동창(동문)회와 향우회의 참여비율은 높다. 특히, 초등학교 동창(동문)과 고향마을(리 단위) 향우회에 가입한 참여비율은 매우 높다. 참여비율과 상관없이 가입한 친목회 회원들은 대체로 적극적인 태도로 조직에 기여하며 활동하고 있다. 이로부터, 제주에서 친목회 활동은 매우 높음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친목회에 참여하는 이유(목적)에 대해 가입한 본인들은 대체로 해당 친목회 조직의 목적(친목도모 등)에 걸맞은 동기로 참여하지만, 타인들의 경우에는 개인적 삶이나 사업에서 도움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친목회 조직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친목회 참여 동기는 친목회 고유목적 찬동, 개인적 이해, 제주문화의 공동체적 전통 등으로 볼 수 있다.

친목회 활동과 정치문화가 엮여 나타난 이른바 ‘권당정치’ 문화에 대해서는 허용적이거나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후보에 출마한 친목회 회원에게 투표할 의향도 높다. 특히, 인물 됴됨이나 정책이 좋다면 친목회 회원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친목회 문화에 대해서는 허용적이거나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제주에서 친목회 활동은 향후에도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친목회 활동과 부조문화의 활성화 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조를 하는 이유는 대체로 그것이 당연한 예의이거나 제주의 문화전통과 관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여긴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보면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높은 활성화를 보이는 친목회일수록 회원들의 경조사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문중(종친)회원의 경조사에 참여비율은 높지 않으나, 8촌 이내의 친가궐당, 6촌 이내의 처가 및 외가궐당, 그리고 3촌 이내의 시돈댁의 경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조하고 있다. 여기 적시된 촌수를 넘어선 먼 궐당의 경조사에도 선별적 혹은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로 보아 궐당공동체 내에서 제주전통의 부조문화는 아직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동창(동문)회원 및 향우회 회원의 경조사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된 초등학교 동창(동회)회와 고향마을 향우회원의 경조사 참여는 더욱 그렇다.

부조문화의 제주적인 전통인 겹부조를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편이지만, 앞으로 그것은 사라져야 할 문화라고 여기거나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민들이 지출하는 연평균 경조사비는 100만원 내외이고, 이러한 부조금이 부담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러나 현재의 부조문화에 대해 허용적이거나 긍정적인 응답율이 높다. 이로 보아, 현재의 부조문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제주인의 친목회 활동과 부조문화는 계속하여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다. 대표적으로 ‘겹부조’ 문화와 ‘궐당정치’ 문화가 그것이다. 겹부조 문화는 제주만의 고유하고 오래된 풍속이다. 부부라도 각자 개별적 행위주체로 여기는 합리성과 평등성의 사유가 깃든 문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는 이로 인해 가게에서 지출하는 경조사비 부담이 가중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그래서 자율적 의사에 맡겨둬야 한다는 관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사라져야 할 문화라고 여기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러한 인식은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부부의 평등성은 훨씬 나아진 시대이다. 그렇다면 겹부조 풍습은 개선해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다.

겹부조는 부부가 별도로 부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부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개인적 관찰이지만, 친목회에서 회원들의 경조사에 갈 때 이른바 단체부조를 하면서 개별부조도 따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 또한 겹부조에 해당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겹부조로 인해 부조금의 부담이 이리저리 늘 수밖에 없다. 친목회 회원들의 경조사에 참여하여 축하하고 조문하는 것은 바람직한 문화이지만 이에 따른 부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합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권당정치’ 문화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정치 영역은 가장 합리성이 작동해야 하는 마당이다. 인물 됴됨이나 정책이 좋다면 내가 알고 친한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긍정적인 뜻에서 ‘권당정치’문화는 제주인의 공동체주의적 개인주의 사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적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사적인 인정에 이끌려 투표하는 맹목적 권당정치는 권위주의적 정치정향을 더 높일 수 있다. 경계하고 개선해야 할 측면이다.

계산적 합리성만을 따지는 이익사회에서 친목을 존립 목적으로 삼는 친목회 활동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비공식의 친목회 활동과 정치적인 공적생활은 구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봉수, 『제주 문화문법과 교육』, 도서출판 누리., 2020.
- 김정기·김홍식, 「제3장 주생활」,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김항원·김진영·강근형·고성준,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총국·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6.
- 김형효, 「한국문화의 생리와 병리에 대한 철학적 담론」, 김형효 외 4인 공저, 『한국문화의 진단과 21세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출판부, 1999.
-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2001.
- 양상호, 「제주의 주거, 건축문화의 이해」(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외, 『제주문화의 인문학이야기』 강의자료집, 2014.
- 오성찬, 「수놓음과 제주의 향약」, 『향토사연구』제4집,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2.
- 이창기,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 신행철 외 지음,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1995.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결혼문화 실태조사』, 2019.
-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1966.
- _____, 「제주도의 부락내혼과 친족조직」, 『인문논집』, 고려대학교, 1977.
- _____, 『제주의 친족조직』, 일지사, 1984.
-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도 접계문화 조사보고서』, 2010.
- 한삼인, 「제주지역의 가족관습」, 『관례연구』 2, 제주관례연구회, 1999.
- 한필원, 『한국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휴머니스트, 2012.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Jeju people's social gathering activities and
supportive culture

Kang, Bong-soo*

This is a survey study of 300 residents aged 30 and over living in the Dong area of Jeju-Si, and their perceptions of social gathering activities and supportive culture. As for social gathering organizations, family reunion, school reunion, homecoming reunion were surveyed.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participation rate of family reunion is low, and the participation rate of school reunion and homecoming reunion is high. Members of social gathering actively contribute to the vitalization of organization, including participation in events. As for the reason why supportive culture was activated, they answered that it was due to due courtesy or Jeju's cultural tradition(custom), but it is not unrelated to the high level of activation of social gathering activity. They feel burdened by the subsidies and show negative perceptions about the double-subsidy customs that aggravate these burdens. They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so-called 'Kwentang'(relative) politics culture that appears in connection with social gathering activities. Such social gathering activities and supportive culture are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but the customs of double-subsidy and the culture of 'Kwentang' politics need to be

* Professor,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mproved.

Key-words: social gathering, family reunion, school reunion, homecoming reunion, supportive culture

논문투고일 2023. 1. 23.

심사완료일 2023. 3. 14.

게재확정일 2023. 3. 20.